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 베이비 부머의 기술창업 촉진을 중심으로 -

| 요약 |

-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응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기술·경험·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니어(베이비 부머) 기술창업 활성화 필요
- 산업연구원이 222개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기업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체계화된 지원제도·창업생태계 조성 등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평균 50.8세(베이비 부머 60.0세), 기업 경력자 비중 84.6%(베이비 부머 88.9%) 등 기술 중심형 창업 시현
 - 창업 결정 요인은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 등 사업화',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경영·조직관리 경험', '창업자금 조달 원활화', '창업사업화 제품 판로 확보' 등의 순
 - 창업 초기단계 창업자금의 구성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순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엔젤·벤처캐피털 등 벤처자금 활용' 비율은 2.0%에 불과
 -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 두려움' 등의 순
 - 시니어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는 각각 3.27점, 3.33점, 3.44점으로 낮은 수준
 -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정부지원제도 부족', '기술창업지원제도 모름', '제도 활용절차 복잡' 등의 순으로 조사
- 향후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 등 시니어 친화적 창업환경 조성, 체계적인 시니어 창업지원제도 마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

■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나, 정부의 시니어 창업 지원제도 미흡

-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시니어 기술창업은 청년창업에 비해 축적의 기술, 사회활동 및 기업근무경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창업 성공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¹⁾
- 시니어 창업²⁾은 2010년대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2010년 최초로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2010년 이후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 시니어 전용 창업센터, 고경력 시니어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기술을 매칭하여 역량을 갖춘 창업팀을 육성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캠퍼스 사업 등을 지원
 - 2019년에는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의 명칭을 ‘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 변경하고,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
-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으로 유일하게 운영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전국에 33개가 지정(2021년)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규모는 42억 원, 2020년 현재 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수행중인 중장년 창업기업 수는 784개 사임.

■ 시니어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50.8세, 기술 중심 창업 시현

-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222개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연령은 평균 47.3세, 창업 당시 연령은 평균 50.8세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창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평균 연령이 56.2세,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60.0세로 조사

1) 일본과 유럽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고령화, 은퇴 이후 자아실현 등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시니어 창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0년대 후반부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창업성공율이 높아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시니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은퇴 이후 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비한 개념으로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의미함.

〈표 1〉 창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연령 및 창업 당시 연령

단위: 세

	창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평균 연령	창업 당시 창업자의 평균 연령
전체	47.3	50.8
베이비 부머	56.2	60.0

유효응답 수: 202개.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이전 재직 직종은 제조업 43.2%, 비제조업 41.4%로 나타나는 등 기업(회사) 경력자가 전체의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 기타(공무원·연구소·대학 등) 및 직업 없었음이었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함.
 -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제조업 55.6%, 비제조업 33.3%로 기업(회사) 경력자가 전체의 88.9%로 기업(회사) 경력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이는 우리나라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대부분 기업(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 부머에서 기업(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기술창업자 비중이 보다 높음을 의미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이전 근무부서는 기술·연구 부서(33.3%), 마케팅 부서(28.2%), 사무·관리 부서(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에서는 기술·연구 부서(30.6%), 마케팅 부서(25.0%), 사무·관리 부서(25.0%) 등의 순으로 조사

▣ 직장에서 축적한 기술로 퇴직 이후 일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향

-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결정한 동기는, ‘퇴직 이후 자기사업 영위’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시키기 아쉬워’, ‘경제적 성공 기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퇴직 이후 자기사업 영위’라는 응답이 52.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시키기 아쉬워’, ‘경제적 성공’순으로 조사
 - 이는 우리나라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창업 결정 동기로 퇴직 이후 자기사업 영위,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의 사업화 등을 지적하였으나, 베이비 부머에서는 직장에서 취득한

〈표 2〉 창업 결정 동기

단위: %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시키기 아쉬워	퇴직 이후 자기사업 영위	경제적 성공 기대	기타	합계
전체	29.7	40.1	22.5	7.7	100.0
베이비 부머	30.6	52.8	16.7	-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 자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한 결정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 등 사업화’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운영·조직관리 경험’, ‘창업자금 조달 원활화’, ‘창업사업화 제품의 판로 확보’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 등 사업화’(36.3%),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운영·조직관리 경험’(31.4%), ‘창업사업화 제품의 판로 확보’(12.3%) 등의 순으로 조사
 - 이는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과 축적한 기업운영·조직관리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확보, 창업자금 조달 원활화 등이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결정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베이비 부머들에서는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 경험, 네트워크 등이 창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표 3〉 창업한 결정적 요인

단위: %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 등 사업화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운영·조직 관리 경험	창업자금 조달 원활	창업팀의 높은 창업의지	창업사업화 제품의 판로 확보	기타	합계
전체	31.5	28.0	12.4	11.1	10.3	6.8	100.0
베이비 부머	36.3	31.4	6.6	6.6	12.3	6.7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 창업 초기 자금조달원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 정부지원금, 은행융자금인 반면, 벤처자금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조달하는 자금의 구성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순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엔젤·벤처캐피탈 등 벤처자금’은 2.0%에 불과함.³⁾
 -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퇴직금 등 자기자금’이라는 응답이 54.1%로 매우 높았으며,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엔젤·벤처캐피탈 등 벤처자금’(2.9%) 순으로 조사
 - 이 같은 조사결과는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이 되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에 비해 퇴직금 등 자기자금을 활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엔젤·벤처캐피탈 등 벤처자금 활용 또한 매우 미흡함을 의미

〈표 4〉 창업 초기 창업자금 조달원의 구성

단위: %

	퇴직금 등 자기자금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엔젤 및 VC 투자자금	기타	합계
전체	46.1	29.0	19.4	2.0	3.5	100.0
베이비 부머	54.1	21.7	17.7	2.9	3.8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 창업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에 따른 두려움 등

- 시니어 기술창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 두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 판로 확보, 기술·지식의 사업화 연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

3)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창업 당시 적정 수준의 창업자금 규모는 업종, 창업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억 7,8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외부조달자금 포함).

〈표 5〉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단위: %

	창업 자금 확보 어려움	판로 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보유 기술·지식의 사업화 연계 어려움	창업실패 두려움	기타	합계
전체	42.3	25.2	14.9	15.3	2.3	100.0
40대	44.2	24.8	10.6	16.8	3.5	100.0
50대	39.0	25.6	19.5	15.9	-	100.0
60대 이상	44.4	25.9	18.5	7.4	3.7	100.0
베이비 부머	38.9	27.8	19.4	11.1	2.8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 한편, 시니어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따른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판로개척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원·금융활용에서 시니어 소외’, ‘보유 지식·기술 사업화 어려움’, ‘시니어 대상 체계적 지원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에서는 ‘판로개척 어려움’ 다음으로 ‘정부지원·금융활용에서 시니어 소외’, ‘시니어 대상 체계적 지원제도 미흡’, ‘보유 지식·기술 사업화 어려움’ 순으로 조사
 - 이 같은 조사결과는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창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표 6〉 창업 활성화 장애요인

단위: %

	보유 지식·기술사업화 어려움	판로 개척 어려움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정부지원·금융 활용에서 시니어 소외	시니어 대상 체계적 지원제도 미흡	기타	합계
전체	18.9	32.0	9.0	27.0	10.8	2.3	100.0
베이비 부머	19.4	27.8	16.7	25.0	19.4	2.8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만족도가 낮은 상태

-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3.27점, 활용도 및 만족도는 각각 3.33점, 3.44점으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에서는 시니어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3.47점), 활용도(3.50점), 만족도(3.56점)가 시니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표 7〉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평균)

단위: 점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전체	3.27	3.33	3.44
베이비 부머	3.47	3.50	3.56

유효응답 수: 222개.

- 이 같은 조사결과는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점 만점에 3.27점으로 별로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부지원제도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

-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부족'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름',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제도 신청 및 활용 절차 복잡'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창업 준비기간별로는 전체적으로 창업 준비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부족'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창업 준비기간이 짧은 기업일수록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이 같은 조사결과는 중장년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과 함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

〈표 8〉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및 활용에 따른 문제점

단위: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잘 모름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부족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제도 신청·활용절차 복잡	기타	합계
전체		23.4	58.1	13.5	5.0	100.0
창업 준비 기간	1년 이하	29.6	50.4	18.4	1.6	100.0
	2~3년	15.7	67.1	8.6	8.6	100.0
	4년 이상	14.8	70.4	3.7	11.2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표 9〉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지원 효과가 낮은 이유

단위: %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	사업 운영기관의 무리한 성과 (매출, 고용 등) 평가 기준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	연계지원 (R&D, 판로, 멘토링·컨설팅 등) 미흡	기타	합계
전체		35.6	23.0	20.7	14.9	5.9	100.0
베이비 부머		36.1	13.9	33.3	5.6	11.1	100.0
창업 준비 기간	1년 이하	29.6	23.2	23.2	18.4	5.6	100.0
	2~3년	42.9	27.1	14.3	12.9	2.9	100.0
	4년 이상	44.4	11.1	25.9	3.7	14.8	100.0

유효응답 수: 222개.

- 한편, 정부의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함.
 - 조사 결과,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 운영기관의 무리한 성과 평가기준’,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 순으로 조사
 - 베이비 부머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 다음으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창업 준비기간별로는 창업 준비기간이 오래될수록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
 - 이 같은 조사결과는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도별 광역자치단체의 연계 지원 (매칭자금 등)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

▣ 시니어 기술창업 친화적 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응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니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2021년 현재 베이비 부머 수는 709만 명으로 추산되며, 베이비 부머가 모두 은퇴할 경우 311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⁴⁾

- 향후 기술창업의 저변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회사) 경험을 갖고 있는 50~60대 시니어(특히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에 의거하여 시니어 창업지원 서비스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 마련
- 창업정책 총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2 ①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동법 제4조 2 ②에 ‘예비시니어 기술창업자’ 또는 ‘시니어 기술창업자’를 추가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인 시니어 기술창업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경진대회, 창업로드쇼 등에 시니어 기술창업 부문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시니어 기술창업자금 확충 등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 시니어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 중반 청년창업 촉진과 같은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우선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중 창업 희망자(특히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매니저를 대상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상당수가 창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
- 일본, 독일의 경우 퇴직예정자의 창업지원(창업교육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정부가 시니어 (예비)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니어 대상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엔젤, 벤처캐피털 등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뒷받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퇴직금 등 자기자금’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4) 2021년도 베이비 부머 수와 이들 중 경제활동 참여자 수 추계는 2022월 5월 발간 예정인 산업연구원의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발전과제」, 이슈페이퍼 참조.

시니어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 창업자금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표 5〉 참조).

-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창업자의 고용 지원, 65~70세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제도화하고, 현장경력 6년 이상 고령자 창업 시 3,000만 엔(약 3억 원)을 무담보·무보증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
- 우리나라도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초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일본과 같이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갖고 기술·지식기반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 시 특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정년퇴직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들은 금융·신용보증기관 활용 시 일반 재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
-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선순환 자금조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엔젤, VC를 통한 민간 벤처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
- 시니어 기술창업자는 기존 중소·벤처기업 경영자들에 비해 기업운영경험 부족으로 자금조달·마케팅·인력관리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애로에 직면하고 있어, 창업 이후 사후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독일의 주 정부는 시니어 창업기업에 현장코칭 등 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제공하는 비영리조직(Gründer 50+)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70~80%를 보조하는 것으로 조사
 - 정부는 기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등 여타 창업지원 조직과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인프라 구축 실태를 비교한 결과,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경우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측정기기 구비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센터에 메이커스페이스(일반랩, 특화랩, 전문랩)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2021년 말 33개의 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비 부족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장 실태조사 결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일부 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센터가 운영비 부족 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열악한 상태에서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의 지방 정부는 시니어 창업을 위한 공간 임대, 창업기업을 위한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조달 등을 연계하는 공공조직(벤처프라자)에 운영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조사
- 정부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 독일과 같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독일이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서 시니어 창업지원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시·도별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양현봉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 선임연구위원 | hbyang@kiet.re.kr | 044-287-3171

김정호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 부연구위원 | jhkim@kiet.re.kr | 044-287-3055

〈 부 록 〉

■ 시니어 기술창업 대상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시니어 기술창업기업 625개사
 - 표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표본(창업기업) 수는 조사대상 625개사의 35.5%인 222개
-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연령대, 창업 업력, 소재 지역, 창업 이전 재직 직장 유형, 창업 이전 근무 부서별 구성 현황은 아래 〈부표〉 참조

〈부표〉 설문조사 응답자(시니어 창업기업)의 특성별 구성 현황

단위: 개, %

		응답기업 수	구성비
전체		222	100.0
창업자 연령	40대	133	50.9
	50대	82	36.9
	60대	27	12.2
	베이비 부머*	36	16.2
창업 업력	창업 후 1년	95	42.8
	창업 후 2~3년	92	41.4
	창업 후 4년 이상	35	15.8
소재 지역	수도권	61	27.5
	비수도권	161	72.5
창업 이전 재직 직장 유형	기업	188	84.7
	기타	34	15.3
창업 이전 근무 부서	기술·연구	72	33.3
	마케팅·총무·인사·관리	95	44.0
	기타	49	22.7

주: 베이비 부머는 1955~1963년 출생자임.